

기름 값 비싸죠... 에코 드라이브(Eco Drive)로 절약하세요!



김원하 |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기름 값이 너무 비싸다.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08년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요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12,125대로 1년 전(12,373대)보다 2.0% 감소하였다. 전년대비 교통량이 뒷걸음친 것은 04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유가가 사상 최대치로 경신 행진을 이어가던 08년 6월과 7월 일반국도 교통량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6.9%, 5.4%나 적었다. 특히 이 두 달 주말 교통량 감소율은 7.8~10.2%에 달했다.

고유가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알뜰운전과 절약운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절약운전은 내 운전 방식이 아니라고 비웃기라도 하는 양 과속운전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기름 값을 더 올려

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도 한 때는 누구 못지않게 과속운전을 즐겼지만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나서는 과속은 커녕 스포츠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은 주말에만 이용하는 편이다.

지난 5월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연비향상과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역사적인 규제책을 발표하였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취한 첫 규제책이라 한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자동

차와 트럭의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규제는 2012년 모델부터 적용되며, 오는 2016년까지 차종별로 평균 연비를 갤런당 35.5마일(ℓ 당 15.1km)로 향상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승용차는 갤런당 39마일의 연비가 적용되며 경트럭은 갤런당 30마일로 연비를 높여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 규제에 맞추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자동차 기름을 아끼는 문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 기분 좋게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기름을 아낄 수 있다

최근 미국 ABC 방송이 미국 자동차협회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 기름을 아끼는 비결을 소개하면서, 이 방송은 “연비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느긋하게 운전하는 것”이라 했다.

가속기와 제동장치를 부드럽게 밟는 것, 실험을 해본 결과 화가 난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은 느긋한 사람에 비해 기름을 50%나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비를 높여준다는 첨가제나 장비들은 광고와는 달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미국 환경부가 실험한 결과라 했다.

◎ 편한 것은 기름 값으로 지불하는 것

자동차 정비업자들은 “에어크리너 깨끗이 해주고, 점화 플러그 정기적으로 교환해주고, 엔진오일 잘 점검해주고 타이어 공기압 잘 맞춰주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편한 것은 기름 값으로 지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수동미션과 자동미션(오토)을 비교했을 때 자동미션이 연료비가 약 10% 정도 더 든다는 것은 상식이다.

평생 수동(변속기)차를 타면 연료비를 약 4천만 원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급출발, 급제동, 과속 같은 것들이다. 이런 습관을 피하면 평생 5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경·소형차는 60km 부근이 가장 연료 효율이 좋고, 중형차는 70km 부근, 대형차는 80km 부근이다. 그리고 110km가 넘어가면 30% 연료가 더 들어가고 130km를 넘어가면 약 40~50%의 연료가 더 들어간다.

◎ 신호 대기→ 중립 기어→ 연료 절약

운전자들에게 있어 기름 값 절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다.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 많이 알려졌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신호대기시 기어를 중립에 두는 방법이다. 이 효과에 대해 효과가 크다, 효과가 별로 없다, 논란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 환경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동을 켜 상태에서 차가 정지해 있는 동안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운행 위치에 놓을 때보다 휘발유 차량은 21.6%, 경유 차량은 60.9% 정도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992만 대의 승용차가 하루 평균 20분 정도 신호대기를 위해 서 있으면, 하루에 휘발유 421km와 경유 316km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교통환경 연구소는 이렇게 하면 1,859t의 온실가스와 8.5t의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실천하면 기름 절약하는 Eco Drive 10 계명

급출발·급제동 삼가, 정속 주행 등 경제적인 운전습관을 통해 연비를 최적으로 끌어올리고 환경까지 보호하는 운전방법으로 ‘에코 드라이브’가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5일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와

대구시가 주최한 '에코드라이브 랠리국제대회' 한국 예선전에서 최고상인 MVP를 거머쥔 강기종씨는 일반인들한테는 폐차 직전인 94년식 쏘나타 II 2.0으로 리터당 10.3km인 규정연비의 2.24배에 이르는 23.1km의 연비를 기록하였다.

그럼,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에코 드라이브(Eco Drive) 무엇인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스스로 친환경운전, 안전운전, 경제운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동차의 효율을 최적화하여 배기가스 감축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자동차 수명을 연장시키는 새로운 운전방법을 실천하는 운전을 말한다.

최근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연구소가 내놓은 친환경적 차량 운전 방식인 '에코드라이브 10계명'을 소개한다.

▶ 급가속·급정거 등 난폭운전을 하지 말라

잘못된 운전습관 때문에 급가속을 하거나 급가속 후 급정거를 하는 것은 길거리에 기름을 버리는 것과 같다. 차량엔진 컴퓨터는 차량 각 부위에 장착된 센서들이 전해오는 정보를 취합해 적절한 양의 연료를 정확히 분사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또 앞 차량에 바짝 붙어 가면서 앞차가 속도를 줄일 때 수시로 급정거를 하면 차량 연비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 정속주행을 생활화하고 가속페달을 너무 자주 밟지 말라

차량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0~80 km/h를 경제속도라고 한다. 이 정도 속도로 차량을 정속 주행하면 가장 좋은 연비를 낼 수 있다.

가속페달을 고정하듯 경제속도로 정속 주행하면 같은 거리를 들쭉날쭉 속도를 바뀌가며 운행하는 것보다 연

료 소모가 훨씬 적다. 그리고 경제속도는 아니더라도 고속도로에서 95km/h나 110km/h 속도에 가속페달을 고정한다고 생각하고 정속주행하면 가속페달을 밟으며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것보다 연비가 훨씬 좋아진다. 내리막 길에서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관성을 이용한 정속주행을 해야 한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말라

공회전은 설령 흑한기라고 해도 2~3분 이내면 된다. 쓸데없이 오랫동안 공회전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연료를 낭비할 뿐이다. 또 짧은 시간이라도 차를 세워놓을 때는 시동을 꺼놓는 것도 불필요한 연료 낭비를 막는 길이다.

▶ 신호등 대기 때는 기어를 중립으로 내려

도로가 꽉 막혀 차가 움직일 수 없거나 신호등에 대기할 때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것도 조금이라도 연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귀찮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경제적인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풀(Full) 주유를 하지 말라

쓸데없는 짐은 연료를 추가적으로 소모하게 하는 주범이다. 한 달 뒤이나 사용할 골프백을 트렁크에서 꺼내 집 안으로 옮기고, 자동차 실내에 있는 작은 짐도 다 치워 차량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연비를 개선하는 요령이다. 또 연료를 주유할 때 풀(Full) 주유를 하지 않는 것도 차량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다.

▶ 타이어 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하라

타이어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하면 노면과 타이어가 접하는 부분에 부하가 크게 걸려 연료 소모가 훨씬 많아진다. 수시로 타이어 압력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것이 연료를 아끼는 비결이다. 타이어 공기압은 일반 정비업소에서 무료로 점검하고 보충할 수 있다.

▶ 소모품 관리를 철저히 하라

공기청정기는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연료 소모를 극소화하고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 공기청정기는 엔진 오일 교환 전 가급적 1회 이상 압축공기를 이용해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점화 플러그나 고압 케이블 등도 2만km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환해야 한다.

▶ 기어 변속을 적절하게 하라

수동변속기 차량은 변속 시점이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차량에 무리를 준다. 가장 좋은 변속 방법은 RPM이 2000~3000일 때다. 자동변속기도 가속페달을 이용해 변속할 수 있다.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높다 싶을 때 가속페달을 살짝 뺐다가 다시 가볍게 밟아주면 일정 구간에서 수동으로 변속된다.

▶ 최적 코스로 주행하라

목적지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출발하는 것도 연료 낭비를 가져온다. 때문에 미리 인터넷 길 찾기 등을 활용해 최적 경로를 숙지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 가급적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라

에어컨을 작동하려면 엔진동력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차량에 무리를 줘 20% 이상 연료가 더 들어간다.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어컨 사용을 적절히 하고 가급적 주행할 때 들어오는 신선한 외부 바람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 에코드라이브로 운전하면 연료 20~30%절약

에코드라이브는 한 마디로 연비와 배출가스량을 꼼꼼하게 따져가며 운전하는 '초정밀경제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혼다 어코드 3.5에 이어 국내에서도 기아자동차의 로체 이노베이션에 국내 최초로 에코 드라이브 시스템

을 적용해서 출시하고 있다. 이 장치는 계기판의 에코(ECO)램프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연비로 주행 가능한 운전영역을 알려주는 램프로 운전자는 에코램프영역에서 운전만 하면 된다.

에코드라이브를 실시할 경우 운전습관에 따라 연료를 20~30%절약할 수 있다. 시중에는 에코 램프만을 판매하는 기기들이 있다.

똑 같은 차량으로 똑 같은 거리를 똑 같은 속도로 10명이 출발한다고 했을 때 100대의 자동차는 똑 같은 양의 연료를 소모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는 똑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엔진회전당 들어가는 연료의 양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엔진에 공급하는 연료의 양을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에코드라이브의 기본이다. **K**

